

설왕설래 간담회,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지난 9월 23일 이종훈 이사장은 임시이사 회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날 이종훈 이사장, 박준철 교수협의회(이하 교협) 회장, 김성길 대학노동조합 한성대 지부(이하 노조) 지부장, 임병국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 위원장, 장원택 감사가 자리했다.

지난 22일 진행된 임시이사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총장 및 보직교수들의 사표 수리 여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의 원인과 대책',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 컨설팅 평가 등 기타 전략'에 대한 것이었다.

이종훈 이사장은 임시이사회 결과 공식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임시이사회에서는 학내 구성원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수렴하여 이번 안건을 의결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다. 그중 가장 피해를 받은 것은 학생이다"라며 이에 학교법인, 학교본부, 교수들이 총체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운을 폈다. 이어 이종훈 이사장은 "각 구성원들과 면담을 한 이유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단의 성의"라며 "이러한 면담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도 있다. 일방적인 비난을 삼가고 책임감을 가지고 발언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분간 대화가 필요할 때 공식적인 서면으로 제출하면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사장 옆에 자리한 장원택 감사는 임시이사회 공식 결과를 발표했다. (아래의 공식발표한 임시이사회 결과에 대한 전문 참조)

박준철 교협회장, 지난 임시이사회에서 발언권을 두고 문제 제기

장원택 이사장의 공식발표가 끝난 후 구성원의 의견이 나왔다. 이종훈 이사장은 "각 주체께서는 한 분석 질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박준철 교협회장은 지난 임시이사회 당시 발언권이 공평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시이사회 당시 각 구성원 대표를 불러 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짧게 이야기했다. 반면 강신일 총장, 이창원 전 교무처장, 조혜경 전 기획협력처장이 임시이사회에서 더 많은 발언권을 가졌다. 이는 불균형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종훈 이사장, "총장 및 두 처장은 보고서 설명했던 것일 뿐"

지난 9월 23일 이종훈 이사장은 강신일 총

장에게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방안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22일 진행된 임시이사회에서 강신일 총장, 이창원 전 교무처장, 조혜경 전 기획협력처장이 3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설명했다. 이종훈 이사장은 "보고서 35페이지 분량을 설명하느라 시간이 길어진 것이다"고 설명하며 "각 구성원 대표에게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방안 요청"에 대한 보고서는 다 읽어 봤느냐"고 질문했다.

박준철 교협회장, "사퇴 대상자에게 이번 평가에 대해 듣는 것은 자기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

박준철 교협회장은 "사퇴 대상자에게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은 자기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이번 임시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총장의 사표 수리 여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이종훈 이사장은 "사퇴 대상자가 아니라 사퇴한 사람이다"고 바로잡았다. 이에 박준철 교협회장은 "사퇴 대상자인데 이사회에서 사표 수리를 안 했다. 사퇴한 사람은 이창원 전 교무처장, 조혜경 전 기획협력처장이다. '사퇴 대상자' 강신일 총장을 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종훈 이사장은 "총장 사표를 수리하려면 이사회로서 기본 원칙과 방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평가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성길 노조지부장, "또 한 달이라는 시간을 두어 행정공백이 생겼다"

김성길 노조지부장은 "학내의 많은 논란과 혼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22일 임시이사회 이후 역시 한 달이라는 행정공백이 생겼다. 본교는 앞으로 외부 컨설팅, 수시입학, 예산 감사 등 중요한 행정일정을 앞두고 있다"며 행정공백을 우려했다. 김성길 노조지부장은 "한 달의 총장 사표 수리 유보가 득이 될지 득이 될지 바라볼 때 득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창원 전 교무처장, 조혜경 전 기획협력처장이 사퇴해서 김동환 학생지원처장은 교무처장을 겸임, 홍정완 입학홍보처장은 기획협력처장을 겸임하게 되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에 이종훈 이사장은 "지금 본교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사 문제에 치질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강신일 총장의 사표 수리의 결정을 한 달 유보한 것이 그동안 행정공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종훈 이사장 "교협은 자꾸 주의주장(主義主張)을 한다"고 말하자 박준철 교협회장 "교수들은 주의주장 못합니까?"라고 반박

이종훈 이사장과 김성길 지부장의 대담이 오가는 가운데, 박준철 교협회장은 "이사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에 이종훈 이사장은 "이미 이야기는 다 끝났다"고 전했다. 이에 박준철 교협회장은 "김성길 지부장과 같은 사안"이라며 "이어서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종훈 이사장은 "다음에 이야기해요. 한성가족으로 알고 이 대담을 바탕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자꾸 주의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준철 교협회장은 "저희는 주의주장 못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종훈 이사장은 "아직 교협 회장님이 발언할 순서가 안되어 왔다. 이전에 하고 있던 말이 다 끝난 다음에 질문한다"고 말했다.

바라보는 길이 다른 교협과 이사회

이종훈 이사장은 박준철 교협회장에게 교수협의회에서 다섯 차례 성명서를 발표하는 동안 재단이사, 이사장하고 상의를 하고 발표 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박준철 교협회장은 "상의할 수 없다. 교수협의회와 이사회가 바라보는 길이 다른데 상의가 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이종훈 이사장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바라보는 길이 다른데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 교수협의회와 이사회는 끝났다"고 말했다.

김성길 노조지부장 "학교의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 줘"

김성길 지부장은 "총장의 사표수리는 조속히 처리되어야한다. 김동환 학생지원처장과 홍정완 입학홍보처장은 교무처장과 기획협력처장의 업무를 기존에 해보지 않아 겸임했을 때, 더 많은 혼란이 생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길 지부장은 "이러한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로 돌아간다"고 전했다. 이에 이종훈 이사장은 "총장 사표 수리도 일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총장 사표 수리 후 총장의 공석을 교무처장이 대행하며 총장 선출을 앞당기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병국 졸준위 위원장, "학교 문제에 대해 단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임병국 졸준위 위원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 학생대표로서 입장을 전했다. 임병국 졸준위 위원장은 "지난 8월 31일 교육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고, 9월 22일 임시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0월 23일 2차 임시이사회가 소집된다. 학교 문제에 대해 단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앞서 장원택 감사가 발표한 '한성가족 여러분에게'라는 공식 발표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이 없다. 지난 이사장 면담 때 지냈

던 '소통 창구'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훈 이사장은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 물었다. 임병국 졸준위 위원장은 "임시이사회에서 결정된 안건에 대해 학생들도 알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창구'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정 사용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주장

이번 임시이사회 결과에 대해 이종훈 이사장과 교수협의회, 대학노동조합, 학생대표의 대담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장원택 감사가 말을 이었다. 장원택 감사는 "재단의 입장에서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며 "우선 건물 신축 등에 재단의 결정이 늦었던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학교로 재정 지원을 못한 부분'이라 전했다. 이어 장원택 감사는 "현재 재단에 재정이 있긴 하지만, 사용에 대해 아무도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어려운 구조이다. 지금 있는 재정을 학교로 당장 내려버리면 재단이 재단을 운영할 돈이 없게 되고 또 구제적으로 얼마를 쓸지에 대해 정하기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장원택 감사는 "설립자 측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골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 이사장, "이사회의 결정이 간단하고 무책임하게 진행된 것은 결코 아니다"

이종훈 이사장은 "임시이사회 결정이 대학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다만,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해결하고 한성대학교가 발전하는 차원의 결정을 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대학 구성원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에 장원택 감사는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 이번 임시이사회에서 이사회 임원들은 이번 평가 결과로 인해 총장이 사퇴하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지 두고 심사숙고하는 것이다. 이를 명확히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논의 중 대립각을 세우는 이종훈 이사장과 박준철 교협회장

박준철 교협 회장은 "이종훈 이사장은 교협이 비난, 비판만 하고, 무능하다, 무책임하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 같다. 서로 생각하는 '발전 방향'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립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이종훈 이사장은 "9월 3일 교수협의회 성명서에 이미 재단 이사회는 무능, 무책임, '이사장은 제대로 소통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6개월 동안은 평가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성명서를 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박준철 교협회장은 "재단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치질을 빚는 것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단력 있는 이사회가 필요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종훈 이사장은 "이사장으로 부임하기

전의 일을 가지고 현 이사장이 결단을 잘못 해서, 건물을 안 사서 그렇게 된 것이다"고 반문했다. 박준철 교협회장은 "이사회의 결단을 말한 것이다. 이사장으로 부임하기 전에도 이종훈 이사장은 이사회의 일원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훈 이사장은 "이번 평가에 대해서 재단의 책임은 1단계, 2단계 평가를 통해서 4개의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 대학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번 문제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같이 노력하자고 나와야 하는 것인데, 교협의 성명서 5개 중에 교수의 잘잘못을 언급한 성명서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준철 교협회장 임시이사회 공식 결과 발표 자리를 박차고 나가

박준철 교협회장은 "한성학원 대학 발전위원회의 운영 여부와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방안 요청"에 대한 보고서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종훈 이사장은 "재단과 대학 본부에서 일부 예산을 내고 한성대 70년사를 준비하고 학교 발전 전략을 세우는 등의 연구를 하고 있다. 대학본부에서 총본이 논의된 사항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방안 요청에 대한 보고서의 공개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종훈 이사장은 "보고서 공개 요청을 하지 않고서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보고서 공개 요청을 촉구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준철 교협회장은 말을 이으며 "이종훈 이사장이 '여기는 토론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며 박준철 교협회장은 이종훈 이사장에게 "그럼 전 나가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말씀하세요"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임병국 졸준위 위원장 학생들에게 메시지 전달하기 바라

박준철 교협회장이 자리를 뜬 이후 이종훈 이사장은 임병국 졸준위 위원장과 '온라인 소통'에 대한 대담을 이어갔다. 임병국 졸준위 위원장은 "성명서와 별개로 학생들에게 이번 평가에 대해 위로하는 글을 써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종훈 이사장은 "학교 운영에 대한 것은 총장의 권한이다 설명했다. 이에 임병국 학생대표는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인데 이 성명서는 학생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 같다"며 학생들에게 위로의 말을 추가해서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종훈 이사장은 "요청에 대해 응하겠다"고 전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종훈 이사장과 박준철 교협 회장은 의견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둘 사이의 의견은 이번 자리를 통해 좁혀지지 못했다. 10월 23일 제2차 임시이사회가 진행된다. 강신일 총장의 사표는 특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와 법인 이사회의 기본 원칙을 통해 2차 임시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지면안내

02



03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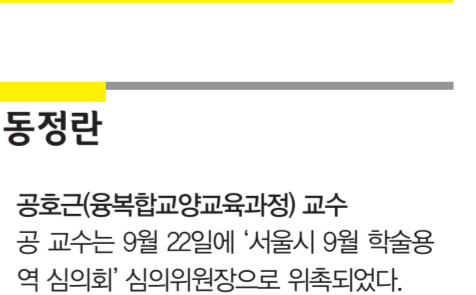
06



07



08



사령

면 부장기자 신동석(행정 3)

아래의 내용은 공식발표한 임시이사회 결과에 대한 전문이다.

〈한성가족 여러분에게〉

9월 학기를 맞이하여 학교 발전을 위해 정진하는 한성가족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학년도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우리 한성대학교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우 실망스러운 평점을 받아 우리 모두의 자긍심을 상하게 한데 대해 법인이사회도 유감으로 생각하며,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당하여 평생을 일고 반석이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보다는 우리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겸허히 성찰하여야 합니다. 학교법인은 포함되어 교직원 모두는 평가의 대상이지 결코 심판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철저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극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법인 이사장은 9월 1일 총장의 보고를 받고 즉시 평가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응전략, 책임소재와 향후 일정을 총장에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내 구성원인 교수협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문회, 대학원총동문회, 학교신문사, 대학본부 등을 15일간 직접 면담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총장어린 의견을 들었습니다. 모두의 주장은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고 도약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법인 이사회는 이러한 한성가족 모두의 뜻을 이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학교법인의 원칙과 방침을 미련하기 위해 9월 22일 임시이사회에서 평가 결과에 대해 정시간 분석하고 논의하였습니다.

학교법인 이사회는 평가결과 교육부의 장학지침에 한, 정원감축, 신규사업제한 등 양적인 불이익도 불이익이지만 한성가족 모두의 자긍심을 커다란 상처를 받은 심리적 고통감을 회복하고 바로잡겠다는 차원에서 다음에 같이 의결한 내용을 한성가족 모두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22일 학교법인 한성학원 이사회

1. 법인이사회는 감사 2명을 포함한 특별감사위원회를

2년 만에 열린 대동제



▲다이나믹 듀오의 공연에 학생들이 열광하고 있다.

2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대동제가 총대의원과 중앙운영위원회, 동아리 연합, 방송국의 주최로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열렸다. 본교는 원래 축제를 1년에 2번 진행했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예산 문제로 1학기 대동제만 개최하였고, 작년에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자는 뜻에서 축제를 열지 않았다. 올해도 종합관 공사로 인해 운동장이 사라져 축제를 하지 않을 것이란 추측이 있었지만 교사 사이의 공터와 광장을 이용해 축제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축제를 주최한 총대의원의회 회장(김공 4) 총대의장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로 피해 입은 학생들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축제를 꼭 열고 싶었다"고 주최 의도를 밝혔다.

축제는 우촌관 잔디밭, 공학관 테니스장, 학생관 옆 공터, 탐구관 앞 광장에서 진행되었다. 교사 사이 공

간을 이용한 축제 장소가 미로 같다는 이유로 축제 컨셉은 '미로탐'으로 정해졌다. 축제 첫째 날과 둘째 날 모두 학교는 원래 축제를 1년에 2번 진행했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예산 문제로 1학기 대동제만 개최하였고, 작년에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자는 뜻에서 축제를 열지 않았다. 올해도 종합관 공사로 인해 운동장이 사라져 축제를 하지 않을 것이란 추측이 있었지만 교사 사이의 공터와 광장을 이용해 축제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축제를 주최한 총대의원의회 회장(김공 4) 총대의장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로 피해 입은 학생들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축제를 꼭 열고 싶었다"고 주최 의도를 밝혔다.

이 날 해나를 처음으로 해본다는 신명진(행정 1) 학생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해서 해나를 하기로 결심했다"며 "해나가 너무 예뻐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밖에 도 첫째 날에는 방송국의 주최로 나도 가수들과 낙산가요제가 치러졌다. 나도 가수는 한성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성곡 노래 대회로 낙산가요제를 시작하기 전 식전 행사로 진행됐다. 올해 39회를 맞이한 낙산가요제는 창작곡을 보유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가요제다. 올해는 타대학교와 본교를 포함하여 총 17팀이 참여했다. 본선에는 타대학교 8팀과 본교 2팀이 진출했으며 대상은 명지대학교 밴드동아리인 페가수스가 받았다. 페가수스 보컬 김경환(명지대학교) 씨는 "잘하는 팀이 워낙 많아 대상을 받을 거란 생각을 못했다"며 "너무 놀라고 감격



▲낙산가요제 대상을 수상한 명지대학교 밴드 동아리 페가수스가 무대를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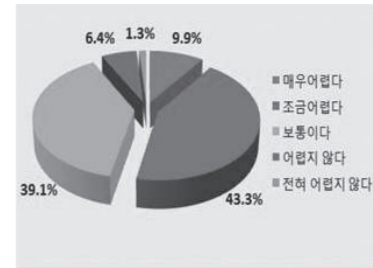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 평생교육원 미용학과가 특수 분장 부스를 운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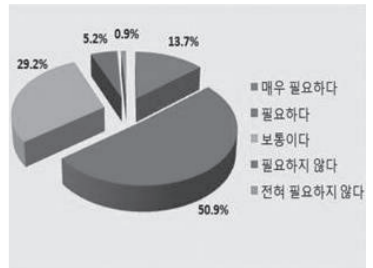
해 어떤 말도 나오지 않는다"고 수 상 소감을 전했다. 페가수스 팀은 대상 상금으로 100만원과 트로피를 수여받았다. 시상이 끝난 후 낙산가요제 초청가수인 레이샤와 밴드 무대를 선보여 축제 첫 날을 마무리했다. 둘째 날은 직업 & 진로 공감 콘서트 동아리 공연과 초청 가수 다이나믹 듀오의 무대로 구성됐다. 직업 & 진로 공감 콘서트는 취업행사 '오랫차차 일(work)내(來)자(磁)'의 일환으로 미래관 DLC에서 열렸다. 동아리 공연은 개그맨 정범균의 사회와 무용과의 퍼포먼스를 첫무대로 시작했다. 이날 동아리 공연에는 본교 동아리 N.O.D(댄스), TRIAX4000(합창), 왕산악(밴드) 뿐만 아니라 한국어문학부 소모임 밴드패와 초청 밴드 가수 MAANI이 참여해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축제의 피날레는 합창 그룹 다이

나믹 듀오가 장식했다. 다이나믹 듀오는 이날 공연에서 '새근해', '고백', '출책' 등의 히트곡을 선보였다. 공연에는 랩과 양키와 사회자 정범균도 참여했다. 양키는 다이나믹 듀오와 함께 현란한 랩을 선보였고 정범균은 무대 위에서 상의를 탈의하며 관객들의 흥을 돋우었다. 젊음과 열기가 좋아 매해 축제에 참여한다는 조규석(상선동 코오롱 아파트) 주민은 "너무 넓은 운동장에 무대를 설치했을 때는 시선이 분산돼 불편했다"며 "이곳(테니스장)은 공간이 좁아 한 눈에 무대가 잘 들어와 공연 관람하기 좋다"고 축제 참여 소감을 전했다. 종합관 신축 공사로 인해 축제를 열 공간이 협소해져 축제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좁은 공간을 활용한 '미로탐'이라는 컨셉으로 큰 문제없이 마무리 되었다. 김민정 기자 kmj@hansung.ac.kr

재학생들의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학습법 워크숍 열려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53.2%)



학습법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50.9%)

본교 교육역량개발센터는 지난 8월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재학생들을 위한 학습법 워크숍을 학기마다 3차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학습법 워크숍 선호도에 관한 것으로 본교 재학생 7,026명 중 953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참여 학생들의 절반 이상인 53.2%가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참여 학생들 중 과반수인 64.6%가 학습법 워크숍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교육역량개발센터는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스피치와 학습방법에 관한 학습법 워크숍을 마련했다. 지난 1학기 때는 학생들이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답한 스피치 증진(43.4%)과 중간/기말고사 대비(32.3%), 자기주도학습(30.3%)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그다음으로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한 리포트 작성법(24%)과 노트 필기(10.5%) 시간 관리 방법(23.4%)이 지난 9월 24일과 10월 1일에 미래관 DLC에서 강연됐다. 마지막 강연은 중간고사 이후에 개최된다. 중간고사 이후가 발표수업기간이라는 것을 고려해 PPT나 스피치와 같은 발표 관련 강연이 열릴 예정이다. 학습법 워크숍을 기획한 임정연(교육역량개발센터 학습역량개발부) 책임연구원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수업이 없는 목요일 4시부터 6시까지를 강연시간으로 잡았다"며 "초청된 학습 전문가들의 강연으로 재학생들이 공부 방법, 노하우 등을 익혀 학습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용고시 합격자 특강 진행돼



지난 6일 오후 1시 미래관 DLC에서 교직과가 주최한 임용고시 합격자 특강이 진행됐다. 특강 강사로는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강원도 영월 봉래중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오영주(회화과 12년 졸업) 졸업생이 초빙되었다. 특강시작에 앞서 신재홍(교원양성교육과정 및 교육대학원) 책임교수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특강을 개최했다"며 "시험에 대한 자세를 바로잡는 유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번 특강은 '임용고시 합격전략 및 공부 방법'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강

연의 내용은 임용고시 전형 유형에 대한 설명과 유형에 따른 답안 작성 방법, 임용시험 합격전략 등 6가지로 구성되었다. 오영주 졸업생은 "중요 내용을 외우는 것 보단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론 또한 암기보다 이해를 해서 적용시키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임용고시를 앞둔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강에 참석한 성유리(한국어문 2) 학생은 "교수님들이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 강의해주었다면, 선배님은 실전에 도움이 되는 것을 강연해주었다"며 "임용고시를 앞둔 4학년 선배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2015년 "으랏차차 일(work)내(來)자(磁)" 취업행사 열려



▲지난 7일 미래관 DLC에서 '고용노동부 신규사업 설명회'와 '중견기업 & 히든챔피언 바로 알기' 특강이 진행되었다. (사진 출처:경력개발지원팀)

지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본교 미래관 DLC에서 경력개발지원팀이 주관한 '으랏차차 일(work)내(來)자(磁)' 취업행사가 개최되었다. 작년부터 개최된 취업 행사는 올해 역시 미래관 DLC 수용인원인 약 240석을 채울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면서 성황리에 마쳤다. 행사는 'Hi 365 & 해외인턴십 설명회'를 시작으로, 행사 둘째 날에는 '고용노동부 신규사업 설명회'와 '중견기업 & 히든챔피언 바로 알기 특강'이 이어 진행되었다. 미래관 지하 1층 로비에서는 취업이벤트로 국제학생증 발급과 스마트뱅크 게임, 증명사진 촬영 등 학생들을 위한 이벤트가 함께 열렸다. 행사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취업성공 패키지 참가자 2차 모집 설명회' 및 '직업 & 진로 공감 콘서트'가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아래 진행되었다. 조중집(경력개발지원팀) 차장은 "이번 취업행사 역시 작년과 같이 '으랏차차'라는 기합소리를 통해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자신감

회복과 성취감을 도모했다"고 기획 취지를 밝혔다. 조중집 차장은 "올해 특히 '직무개발'을 중심으로 행사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또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으로 학생들의 인식을 전환하여, 숨겨진 보석같이 전망이 밝은 좋은 회사들을 소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행사가 이토록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큰 요인으로 '도전 장학금'이 꼽혔다. '도전 장학금'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선착순 500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전 장학금은 경력개발 프로젝트로서 단계별 미션을 달성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참가 등 록은 10월 30일까지이다. 이번 '으랏차차 일내자' 취업특강을 3개 이상 참석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10만 원이 지급된다. 양초아(의류패션 4) 학생은 "도전장학금에 참여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 2차 모집 설명회를 들었다. 평소 취업을 위한 자소

서 쓰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번 강의에서 자소서 쓰는 법까지 들을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 아니라 도전 장학금 미션은 공인영어 시험보기, 자격증 따기, 채용 박람회 2회 이상 방문하기, 대학원/교내에서 상담하기 등으로 주어져 각 미션마다 장학금이 누적 지급된다. 또한 글로벌인재육성 프로젝트로 어학우수자 장학금도 준비되었다. 이는 재학생의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해 해당 외국어 기준을 충족하면 장학금이 지급된다. 조중집 차장은 "본교에서 장학금 조성이 필요한 시기에 좀 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했다. 도전 장학금이 취업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하면서 학생들의 경력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제11회 한성공학경진대회 개최돼



▲한성공학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링거링거링팀이다.

본교 공학교육개발센터가 주관하고 한성대학교 IPP사업단이 후원한 제11회 한성공학경진대회가 지난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동안 낙산관 3층 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대회는 실물 형태로 전시 가능한 공학 개발 작품과 공학 연구 분야를 주제로 심사하여 시상하는 방식으로 매년 개최된다. 이아란(공학교육개발센터) 연구원은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작품과 논문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며 "그 경험을 통해 한 발 더 성장하는 한성공학도를 만드는 것이 대회의 목표"라고 주최 이유를 설명했다. 참가 대상은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한 공과대학으로 지도 교수까지 최대 6인이 한 팀으로 참가할 수 있었다. 이번 대회에는 주로 인간생활과 관련된 작품들이 출품되었으며 총 45팀이 참가했다.

최종 본선에는 30개의 작품과 2개의 논문이 진출했다. 중북 수상이 가능한 협찬상 7개를 제외하고도 32개의 상이 수여되며 본선에 올라간 32개팀 모두가 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의 대상은 '실시간 의료제 투여 관리 시스템'을 작품으로 출품한 링거링거링팀이 수상했다. '실시간 의료제 투여 관리 시스템'은 링거대에 무게 측정 기능이 있는 디바이스를 달아 실시간으로 남은 링거액의 무게를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어플이다. 링거링거링팀의 신동리(정통4) 학생은 "지난 8월 코엑스에서 열린 'K-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에 '실시간 의료제 투여 관리 시스템'으로 참가했다"며 "그때 여러 기업의 대표들에게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 피드백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김민정 기자 kmj@hansung.ac.kr

패션디자인전공의 졸업작품 패션쇼 '바림' 성료돼



(사진 신동석 기자)

지난 9월 11일 악스코리아 악스홀에서 패션디자인과의 제33회 졸업작품 패션쇼가 열렸다. 전시회의 주제는 '바림'으로 색을 단계적으로 점점 넓게 하거나 진하게 한다는 뜻을 지닌 순우리말이다. 학생들은 20세기의 음악과 관련된 히트한 옛 기억의 빛바랜 스트리트 패션에서 영감을 얻었고 최근 문화 트렌드를 결합하여 하이패션을 창조했다. 패션쇼에서는 80명의 학생들이 각자의 개성과 아이디어로 디자인하고 직접 제작한 123벌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그중 한국복식 38벌은 무용과 외의 플라보레이션을 통해 무용을 위

한 복식으로 제작, 나머지 87벌은 'GROWN PIPPI', 'ZOOT+ARCHITECTURE' 등 11개의 테마 주제에 맞는 창작복식으로 제작되었다. 안현주(패션디자인) 전공 주임교수는 "이번 졸업작품 패션쇼는 학생들의 향상된 능력을 보여주었다"며 "작품을 보여 학생들이 예비 패션전문인으로서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했다"고 학생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 "지난 4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멋진 무대를 만들어준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여성주의', '페미니즘' 이제는 모두가 입을 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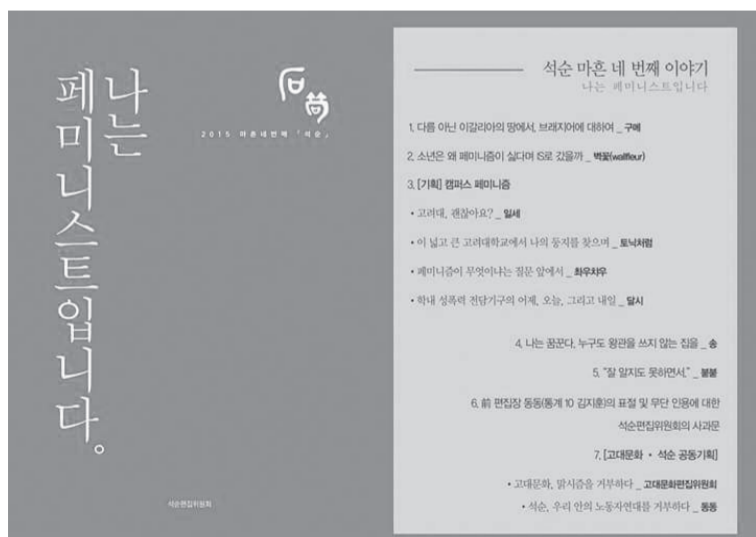
최근 인터넷상 도를 지나친 '여성 혐오' 문제와 '나는 페미니스트가 싫다'는 말과 함께 IS에 가입한 김근 사건 등 끊임없이 터지는 이슈들로 인해 '여성주의(페미니즘)'가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성주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누군가는 70년대부터 이미 여성 상위시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여성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학 안에서 '여성주의'를 활동하는 여러 단체를 만나 그들의 설명을 들어보았다. 기자는 서강대 여성주의 학회 '틀겜'의 박효진 학회장,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의 배지원 학회장, 중앙대 여성주의 교지편집위원회 '녹지'의 한주희 편집장, 그리고 고려대 교지편집위원회 '석순'의 임서영 편집위원과 인터뷰를 나눴다.

1. 우선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강대 여성주의 학회 틀겜(이하 틀겜): '틀겜'은 서강대학교 여성학과 소속의 여성주의 학회이다. 틀겜은 90년대 여성주의 운동이 활발했을 당시 사회과학대 여성주의 학회로 시작되었다. 이 학회가 2000년대에 들어와 맥이 끊겼고, 이를 12년도에 다시 살리게 되었다. 당시 틀겜의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 명맥을 다시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틀겜'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여성학과로 소속을 바꾸었는데, 활동 대상은 학부생 전체이다.



▲중앙대 여성주의 교지편집위원회 녹지의 독자모임 포스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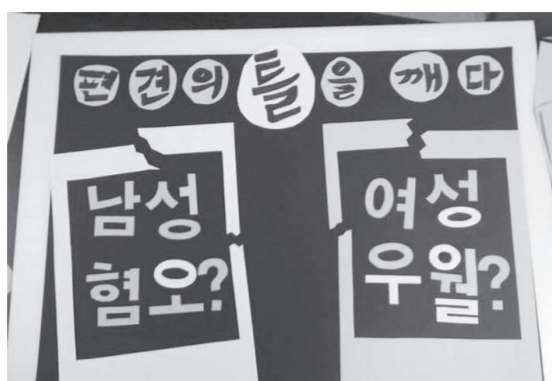


▲고려대 여성주의 교지편집위원회 석순의 제44호 표지이다.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이하 달):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은 서울대학교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전에 관악 여성주의자 모임인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서 활동하던 한 선배가 12년도에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을 만들었다. 당시는 사회대 여성주의자 학회였는데 후에 '공간'이 없어지면서 구성원이 대대적으로 바뀌었고, 지금의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이 되었다. '관악' 여성주의 학회이지만 아직까진 지역기반의 운동은 없다. 하지만 여성주의 이슈가 있을 때 연대할 수 있는 자정이 있을 것 같다.

중앙대 여성주의 교지편집위원회 녹지(이하 녹지): '녹지'는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이다. 67년도 대학 내 교지로 처음 만들어졌는데 창간 1호, 2호를 봤을 때 지금의 페미니즘 인식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그 당시 여학생들이 만든 교지의 의미가 컸다. 10년쯤 지나자 정식적인 페미니즘 교지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고려대 여성주의 교지편집위원회 석순(이하 석순): 고려대 여성주의 교지 '석순'은 1983년도부터 만들어지게 되었다. 당시 문과대라고 해도 여학생이 적었던 시기여서 여학생이 만



▲서강대 여성주의 학회 틀겜의 작년 학술제 사진과 학회 홍보 거리제 모습이다.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이 38 전국 여성노동자대회와 연대한 모습이다.

든 회의의 의미로 시작되었다. 정식으로 고려대학교 교지로 등록이 된 후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여성주의 교지가 되었다.

2.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틀겜: 기본적으로는 '여성주의'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1학기에는 다양한 주제를 토론하고, 2학기에는 그중 한 주제를 정해서 학술제를 진행한다. 같은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모임과 연대하여 작년에는 서강대 퀴어지연대 '춤추는 Q', 문과대 여성주의 학회 '이음'과 함께 '학내 운동'을 주제로 학술제를 진행했다.

달: 지금은 여성주의 이론의 역사와 여성주의의 흐름을 다룬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세미나 외에도 38 전국 여성운동자 대회에 참여하고,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천 일째 복지 투쟁을 하고 있는 해고노동자 두 명과 연대를 하고 있다. 학내에서는 아예 여성주의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영화 상영제와 여성 문화 축제 등을 하고 있다.

녹지: '여성주의' 교지 발간을 하고

이 되고 있어 이러한 일들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최근에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자료를 붙이면서 정책에 대한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녹지: 최근 발행한 호에서는 표지에 김치찌개 사진을 사용하고, '여성 혐오'에 대해 다루었다. 여성 혐오가 나타나는 양상, 미디어와 일상 속에서 여성들이 겪는 여성 혐오 사례를 담았고, 그러한 맥락을 분석한 기사를 냈다. 여성 혐오에 저항하는 움직임으로, 여성들의 목소리를 낸 '메갈리아'에 대해서도 기사를 다뤘다.

석순: 지난 호에서는 IS 김근에 대한 이야기, 여성의 몸에 대한 억압, 학내 페미니즘 이슈와 성 노동 등을 다뤘다. 다음 호에선 '여성 혐오' 주제와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장동민 사건 등 특히 미디어와 관련한 주제를 다룰 것 같다.

4. 대학 내에서 인지되나 '여성주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틀겜: 확실히 올해 기준으로 장동민 사건 등 여성 혐오 이슈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페이스북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올해 유독 학생들의 연락이 많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관심들이 학생 전체로 봤을 때는 소수이지만, 이제는 '여성 혐오'라는 이슈가 더 이상 페미니스트들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일반 학생들도 함께 공감하는 주제가 된 것 같다.

달: 이전의 관악 인문대에서 여성주의 운동이라고 하면 운동권 내에서 여성들이 소외되는 지엽적인 부분까지 규제하려는 것들이 많았다. 그런 부분들이 여성주의는 작은 일까지 꼬투리를 잡는 것 아니냐는 편견으로 이어진 것 같다. 학내 운동으로 노동 문제에 투쟁을 하는 와중에 여성주의 실천을 하지는 것이 덜 중요한 일로 인식되었다. 지금 여성주의를 이야기할 때 20대 남학생의 경우 군대를 가기 때문에 대학교 안에서 남남관계를 받을 때는 여성들이 받는 차별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성주의는 여성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여성 우월주의 아니냐는 질문을 받게 되는 것 같다.

녹지: 다수의 학생들이 녹지에 대해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역사가 깊고, 꾸준히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바라보는 마니아 독자들이 있다. 그것에는 아무래도 여성주의 안에서 소소한 주제들을 다뤘는데, 이번 호에서 '여성혐오'를 주제로 발간하자 많은 학생들이 녹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기사가 흥미로웠다는 반응도 있지만, 너무 여성들의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 역시 있었다. 학내 커뮤니티에서도 녹지에 관한 부정적인 글이 올라왔는데 이러한 반응 또한 녹지의 존재감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또 대학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자기 전공이 아니고서야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갖기 힘들어졌다고 생각

한다. 전공과 학점에 몰두하기 바쁜 와중에 이러한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따로 공부를 하거나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석순: 최근 여성 혐오 이슈로 가시적으로는 편집위원이 늘어난 변화가 있고, 교지에 대한 문의도 많이 늘었다.

5. 대학 안에서 '여성주의' 담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틀겜: 여성주의는 여성 뿐 아니라 다른 여러 소수자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는 소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달리, 여성주의는 여성의 권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기존의 권력체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하나의 가치관, 인식론이다. 여성주의는 기존 세계가 백인, 남성, 중산층, 이성애자,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에 따라 여성 뿐 아니라 유색인종, 빈곤층, 성 소수자, 장애인 등은 모두 주변화되고 배제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렇게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 동정이 아닌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비판적 시선을 갖추는 것은 이 시대 대학생들에게 학내 여성주의 담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달: 대학은 대안적인 변론을 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대안적인 담론에서 여성주의가 가지는 위상이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20대 대학생으로서 여성주의를 공부한다는 것이 대학을 넘어 사회로 나갔을 때 위기에 대항할 수 있는 좌초가 되지 않을까.

한편 학내 학생들이 여성주의에 대해 자기검열을 하고, 탈정치화 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탈정치화로 학생들이 사회 구조 안에서 점점 무력해지는 것 같아 우려된다.

녹지: 대학뿐만 아니라 여성주의 담론은 어디서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공간에서나 여성 차별과 이데올로기가 있고 이를 깨기 위해 여성주의 담론이 필요한데, 대학이라는 공간이 여성주의에 대해 깊이 배우고 여성주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화된 장소라 생각한다.

석순: 대학이라는 사회 안에서 여성이 과연 남성과 같은 지위에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항상 필요한 것 같다. 아직까지도 여성이 성폭력에 취약하거나 교수님들이 강의실에서 성차별 발언을 하는 등 문제가 많은데, 이런 문제가 문제시조차 되지 않을 때가 많다. 과연 대학이 여성이 동등한 주제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석순은 여성주의를 통해 여성을 포함한 다른 소수자를 전체를 대변하고자 한다. 여성뿐만 아니라 대학사회 안에서도 가려진 주제들이 있고, 이런 주제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알아라

사랑하는 사이에도 지켜야 할 비밀은 있다 변심한 애인의 이메일, 열어봐도 될까

"우리 이제 헤어지자."
"오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미안해. 나, 다른 여자 생겼어. 쿨하게 보내줘."

이런 이별 장면, 익숙하지만 가슴 아프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 뉴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했다가, 요즘 같이 정보통신이 발달한 시대엔 '인터넷에 신상이 털린다'로 바뀌어 할 듯싶다. 통신 기술이 좋아질수록 삶은 편리해지지만 반대로 개인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은 더 커져간다.

대학생 김지혜(가명, 여)씨와 이병만(가명, 남)씨는 애인 사이였다. 둘은 이메일 비밀번호를 공유할 정도로 가까웠다. 그런데 병만 씨는 새 여자 친구가 생기자 일방적으로 결별을 선언했다. 갑작스런 통보를 받은 지혜 씨는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복수심에 불타던 그녀는 평소 알고 있던 병만 씨의 메일 계정에 접속했다. 메일을 일일이 열어서 새 애인의 메일주소를 알아낸 지혜 씨는 병만 씨가 또 다른 여자와의 찍은 사진들을 보았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보낸 편지함에 남겨진 메일은 삭제해버렸다. 이른바 '물 귀신 작전'이었다. 병만 씨가 새 여친과 개전 건 말할 것도 없다. 화가 난 병만 씨는 지혜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지혜 씨의 행동은 죄가 될까. '당근'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아무리 애인 사이였다더라도 메일을 열어봐서는 안 된다.

정보통신망법 4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지혜씨의 죄는 17지가 아닌 27지였다. 보낸편지함의 메일을 삭제한 것도 별도의 죄가 성립된다. 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지혜씨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옛 애인에게 복수한 대가 치고는 결코 작지 않다.

그렇다면 애인이 아닌 실제 부부나 가족 사이에서는 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를 마음대로 볼 수 있을까. 그것도 위험하다.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서 남편의 메일과 문자를 본 아내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비밀'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배우자의 이메일도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비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사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열어봐서는 안 된다. 결론은 애인이나 가족 사이에도 지켜야 할 비밀은 있다는 말이다.

정보통신망법은 비밀보호와 함께 정보통신을 통한 각종 범죄를 규제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전화문자 등을 이용하여 음란물이나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나 사진 등을 보내면 처벌 대상이다. 옛 애인의 동의 하에 찍은 은밀한(?) 사진을 나중에 찾길

에 공유하는 행위도 두말할 것 없이 범죄다.

만일, 옛 애인과 교제중인 사람에게 헤어질 것을 종용하는 문자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 한 두 번은 관찮겠지만 반복적으로 보낸다면 범죄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자신의 예전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는 남성에 "계속 만나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수십 차례에 걸쳐 보낸 남성에 별 급형을 선고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애인 중 한 사람이 상대방 몰래 차림이나 집에 녹음기를 설치해 도청했다면 어떤 죄에 해당할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형이다. 다만 '나'를 포함한 대화를 녹음했을 때는 상황이 다르다. 즉,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상대방과 대화 도중 녹음버튼을 눌렀다면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리하자면, 제3자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도청기를 설치한 것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만남 못지 않게 헤어짐도 아름다울 수 있다면 좋으련만, 사람 사이에서 그게 쉽지 않은가보다. 법을 떠나서, 한때 사랑했던 사이라면 이별 후에도 비밀만은 서로 아름답게 간직했으면 한다.

김영국(법원공무원, 법률칼럼니스트)

학술정보관 갤러리 2F
 2015. 10. 2. - 10. 31.
 한성아카이브展
 한성의 기록,
 '우촌'
 그리고 '우리'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교단에서

신영현
(교양교육원 부교수)

예로부터 예능은 인간에게 즐거움과 교훈을 동시에 주는 통로였다. 지성인은 예능에서 즐거움뿐 아니라 시대와 역사를 분별하는 안목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셰익스피어의 명작들에서도 세상에 대한 총괄살인의 비판은 언제나 광대(fool)이라고 불리는 의 몫이었다.

요즘 가장 핫한 TV 프로그램들을 쫓아보자면, <3대 천왕>, <복면가왕>, <청춘FC 헝그리 일레븐>을 들 수 있다. 각각, 요리, 노래, 스포츠를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경쟁과 순위 매김(평가)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이다. <3대 천왕>은 소위 '떡방'에 속한다. 현지 외식업체 사장이 두 명의 개그맨과 공동 MC로 진행한다. 해당 메뉴(예컨대 떡볶이나 칼국수 등의 서민 음식)로 소문난 맛집 세 곳의 주인들을 방송국으로 불러서 즉석 요리대결을 펼친 후 현장 시식단

의 투표로 우승자를 가린다. 먹는 방송이 뜨는 시대는 하나같이 먹고살기가 힘들거나 먹는 것 이외에 낙이 없는 시절이기 마련이다.

<복면가왕>은 얼굴을 가리고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노래를 잘하는가를 선정하는 프로이다. 이 프로의 인기의 배후에는 공정한 경쟁을 희망하는 대중의 욕구가 존재한다. <3대 천왕>과 <복면가왕>에서 판정은 요리 전문가나 노래 전문가가 아니라 대중이 내린다. 이는 시장이 최종 심급에서의 판정관이 되는 신자유주의의 예능식 버전이다.

<청춘FC>는 여러 가지 이유로 축구 선수의 꿈을 접어야 했던 축구 '미생'들을 뽑아서 완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에 보내는 청춘들의 환호와 응원에는 출구 없는 사회, 재기의 기회가 원천 봉쇄된 우리사회에 대한 분노와 변화에의 열망

이 자리한다.

가히 경쟁이 대세를 넘어 삶의 방식이자 오락이 되어버린 시대이다. 우리 대학 역시 경쟁과 평가에서 비껴갈 수는 없으며, 현재 낙제점을 받은 상황이다. 예능 프로만큼의 투명성과 공정성에도 못 미치는 평가였다는 억울함도 있다. 그러나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다.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과감한 투자, 모든 걸 다 건 도전이 강요되는 엄혹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간절함, 내가 있기에 나도 있다는 뜨거운 동지애만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지레 겁을 먹거나 비관적인 전망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이 경쟁 이후에는 그만큼 우리가 더 성장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쟁!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것이 답이다. 그것만이 오래 스포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 사 설 ·

저렴한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단상

국제유가가 많이 내렸다. 국제유가는 2004년까지만 해도 서부텍사스 중질유 (WTI) 기준으로 배럴당 40달러를 넘은 적이 없었다. 2004년 이후 급속하게 올라 2008년에는 140달러를 넘었다가 다시 떨어져, 지금은 2005년 수준인 40달러 중반을 형성하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미국 등에 의한 셰일가스과 셰일오일 공급 증가, 중국 등 신흥 산업국들의 경제성장 둔화 등이 이러한 국제유가 하락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는 국제유가 하락이 반가운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원유와 같은 에너지 가격 하락은 에너지 사용을 부추기거나 재생에너지 정책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 에너지 효율이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2014년 말에 페루의 리마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에서도 국제유가 하락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원유와 같은 에너지 가격은 수시로 변동하지만, 기후변화는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따라서 일관된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조하고 개별 국가들은 달라진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처방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기후변화는 세계 평균치보다 2배가량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일시적인 에너지 가격 하락 때문에 이러한 기후변화정책의 이행이 늦어지거나 취소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독일의 민간연구소인 German Watch는 매년 각국의 기후변화성과지수(CCPi)를 발표하는데, 2015년 한국은 조사대상 58개국 중 52위를 차지했다. 2010년 34위, 2011년 41위, 2012년 47위, 2013년 50위, 2014년 52위 등으로 매년 순위가 하락하고 있다. 선진국을 자임하고 있지만 실제 에너지 및 기후변화 행동은 개도국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때마다 등장하는 화려한 구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국가 그리고 인류 공동의 이상과 미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는 품격 높은 철학, 정치, 그리고 문화적 토양의 구축이 절실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 삼 학 송 ·

강자의 편에선 대학구조개혁 평가

2400여년 전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코스와 '정의란 누구의 이익인가' 논쟁을 한다. 정의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약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보고, 트라시마코스는 강자의 편이라 주장했다. 이러한 논쟁의 승리자는 국가론의 주인공인 소크라테스였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과연 약자의 편에 서있을까?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평가에 있어서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성 보장',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지표수 축소' 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을 나누는 1단계 평가는 여전히 수치중심의 정량평가 위주로 진행되었다. 게다가 교육부는 현장평가를 면접평가로 대체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부실평가'라고 비판 받았다.

뿐만 아니라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 소위 '떡볶이법'도 문제다.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사립대학이 '자발적 퇴출을

선택하면 사학운영자들에게 전여채산을 돌려주겠다고 명시되어있다. 법안 제1조는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법안을 보면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보다, 학교법인의 '자산 회수'를 유도할 '재산 처분 특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만약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사학운영자들은 돌려받을 재산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 경영을 더 부실하게 하고, '자발적 퇴출'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비리부정 재단이 대학 구성원들에게 불리하게 약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법안의 통과만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 군소규모 대학보다는 수도권 대학, 대학구성원보다는 사학운영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은 소크라테스의 주장보다 정의는 강한 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인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묻고 싶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따르면 사립대학이 '자발적 퇴출을

즐겁지만 웃을 수 없는 대동제



기자수첩

김민정
(한국어문 1)

이번 대동제는 누군가에게 '참 오래간만에 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입학 후 처음 겪어보는' 한성대학교 축제였을 것이다. 대동제는 어떤 의미의 우려처럼 예산이 부족해 축제의 퀄리티가 심각하게 떨어지지도, 공간이 협소해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도 않았다. 자신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려주던 부스와 타로 점괘를 봐주던 부스는 학생들로 붐벼 대학 축제의 진면모를 단단히 보여주었다.

대동제를 즐기는 학생들의 표정도 밝았다. 학생들은 대동제 기간 동안 학교 곳곳을 삼삼오오 떠 지어 다니며 까르륵 웃었다. 다이나믹 듀오가 무대 위에서 내려와 팬스에 몸을 기댔을 때 즐거움에 가득 찬 비명을 크게 지르기도 했다. 공연이 끝나고 가수가 퇴장할 땐 간절하고 아쉬운 목소리로 하지만

얼굴 가득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며 '앵콜'을 외치는 모습도 보였다.

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이제 대동제는 끝났다. 모두가 현실로 돌아와야 할 때가 됐다. 꿈 같았던 즐거운 대동제와 달리 현실은 매섭고 가혹하다. 우리는 아직 'D+' 부실대학 탈출이라는 거대한 산을 남겨두고 있다.

대동제 기간 동안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며 까르륵 웃던 누군가는 걱정을 한다. '부실대학이라 취업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다이나믹 듀오 공연을 보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던 다른 누군가는 생각을 한다. '입학하자마자 학과가 사라진데 이어 학교도 없어지는 걸까' 만족스러운 미소로 '앵콜'을 열심히 외치던 어떤 이는 좌책감을 느낀다. 학교 상황이 좋지 않은데 축제를 열고 즐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대동제를 통해 모두가 다 함께 크게 어울려 화합했다. 대동제를 잠시나마 즐기던 동안 '부실 대학'에 대한 근심 걱정을 싹 잊었다. 알게 모르게 'D+' 등급으로 상처받았던 부분까지 위로받으며 치유됐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현실로 돌아오자 대동제를 즐겼다는 사실 자체가 양심을 짓눌러 숨통을 조여온다. 대학가의 '낭만적인 행사'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우리는 왜 '낭만적인 행사'조차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언제쯤 이 '낭만적인 행사'를 좌책감 없이 즐기게 될까.

나는, 아니 우리는 그 어떤 후폭풍도 좌책감도 없는 대동제를 즐기고 싶다.

표정을 빼앗긴 사람들



낙산에 올라

이운범
(한국어문 3)

통학하는 지하철에 올라 문득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들 스마트폰에 고개가 풍뎡 빠져있다. 물론 그 풍경이 전혀 낯설지도 않고, 그 상황을 인지한 나조차도 결국 그들에게 합류한다는 것에 이 작은 기기들이 우리를 얼마큼이나 지배하고 있는지 쉬이 느낀다.

하지만 어쩌면 슬픈 일이다. 불과 5년 전, 스마트폰의 보급이 별 불일 없었을 시절엔 많은 사람들이 책으로 짬짬이 지식을 쌓거나,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훑쳐보는 등, 여러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그중 후자였는데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는 것만큼 재밌는 일이 없었다. 몸을 간신히 가누면서 즐기고 있는 사람을 보면 '하루를 비쁘게 살았구나.' 생각 하고 전화를 하면서 표정이 자유자재로 변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에 따라 내 상상도 여가져가 날아다녔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표정을 훑쳐려고 해도 훑칠 수가 없다. 모두

들 감정 없는 표정으로 터치스크린을 밀어 올릴 뿐이니 말이다.

우리 학교 한국어문학부 김동훈 교수님과 면담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난 경험 많은 교수님과 대화하고 싶었던 작가 쪽 이야기를 꺼내 보았다. 그때 난 교수님께 잊고 있었던 핵심을 질렀었다. 그 당시 같은 말이 무었이었나면 사람들을 잘 관찰하라는 이야기였다. 그 말씀에 나는 한동안 시무룩했다. 한 때는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에 광적이었던 내가 딱딱하기로는 다이아몬드를 닮은 그 사람들과 같이하는 것에 크나큰 환멸을 느끼며 말이다.

어쩌면 현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 못하고 공격적인 것에 변명 같은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요즘 각종 영악한 수법의 범죄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범행들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에게 접촉하기를 꺼리고, 심하게는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

보는 것조차 조심하는 사때까지 이른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실제로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나조차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몰래 쳐다보는 것에 급작스러운 자책감을 갖기도 하니까 말이다. 사람들의 표정을 메모하며 상상과 웃음을 짓던 과거의 나와는 영 판판이다.

이 글을 쓰면서 문득 뇌를 스치고 간 생각이 있다.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에게 무한히 표정을 빼앗기고도 웃을 되찾던 사람들이 이전. 그 조그마한 기기에게 영원히 표정을 빼앗긴 것이 아닐까. 물론 통화, 통근 길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어쩌면 혼자 놀 때에도 평화로운 한 쉼의 시간을 이용할 때에도,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그 한때에도 우리의 표정이 빼앗긴다면, 그때엔 우리 표정을 되돌릴 수 있는 날이 올까. 하는 나이 어린 노파심이 가슴을 무겁게 짓누른다.

누군가 왜 '한성'에 왔냐고 묻거든



낙산에 올라

한재원
(행정 4)

지난 8월 말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서울 소재 대학 34개교 중 16개교, 거의 절반이 A등급을 받았다. 참 애석하게도 그리고 인서울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단 5개 학교 만이 하위 등급을 받았다. 그중 한 학교는 바로 우리 학교, 한성대이다.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II유형을 받지 못한다. 신규 정부재정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된다. 수시 경쟁률도 떨어졌다. 사실 이러한 제재들은 재학생들에게는 딱 와 닿지 않는다. 어쩌면 재학생들은 이 사실을 두고 '그런가 보다', '그렇다더라' 하며 넘어갈 수 있겠다.

하지만 본교의 현 사태를 바라보며 뺨속까지 와 닿는 질문이 하나 생겼다. 나는 왜 이 대학에 왔지?

1학년 때, 우리 학교의 작은 캠퍼스가 씩 마음에 차지 않았다. 몇 개 없는 건물, 작은 운동장, 적은 규모의 학생 들. '우리 학교가 더 크고 멋졌더라면'하고 생각할 때 한

선배가 말했다. "도서관에서 시험기간 아닐 때도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거의 편입 시험 준비하더라"

2학년 때, 좋아보였던 교정은 오히려 아담해서 마음에 들었고,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찾아내며 제법 대학생 다운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1학년 때까지만 해도 함께 우르르 몰려다녔던 동기들 중 몇 명이 사라졌다. 누구는 재수하겠다고 자퇴했고, 누구는 편입시험을 준비해야 한다며 무리에서 빠졌다.

3학년 때, 교육부의 정책에 힘입어 흔들리는 우리 학교를 마주하게 되었다. 학생들 모르게 학점 세칙이 바뀌고 학사 제도가 개편되었다. 특성화 사업에서 탈락하고 재정 지원제한대학 지정을 유예 받기 위해 정원을 감축하게 된 우리 학교가 답답했지만 이 난국을 곧 헤쳐나갈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학과를 통·폐합했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이해'를 요구했다. 한 친구는 말했다. 나는

왜 이 대학에 온 걸까?

4학년이 된 지금, 교수님들과의 면담에서 심심치 않게 들은 말이 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자신감이 낮은 것 같다. 다른 대학 학생들과 견주어도 부족한 게 없는데 말이야? 라는. 어떤 취준생은 인사 면접에서 '학 교가 낮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받기도 했고 어떤 졸업생은 결과 발표가 나자 직장 동료들로부터 '아침 인사 대신 '너네 학교 부실대학 됐던데?'라는 질문을 듣게 됐다. 부실대학에 다니는 취업 준비생 혹은 부실대학을 졸업한 사원이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학교는 졸업생, 재학생들의 자존감을 그리고 애교심을 한 순간 무너뜨렸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 '나는 왜 이 대학에 왔지?', '나는 어쩌자고 이 학교에 왔지?', '나는 왜 하필 이 학교에 왔지?' 이 질문에 답하고 싶다. 한 학교의 표어처럼, 한성시 나의 자랑스러운 학교다.

낙산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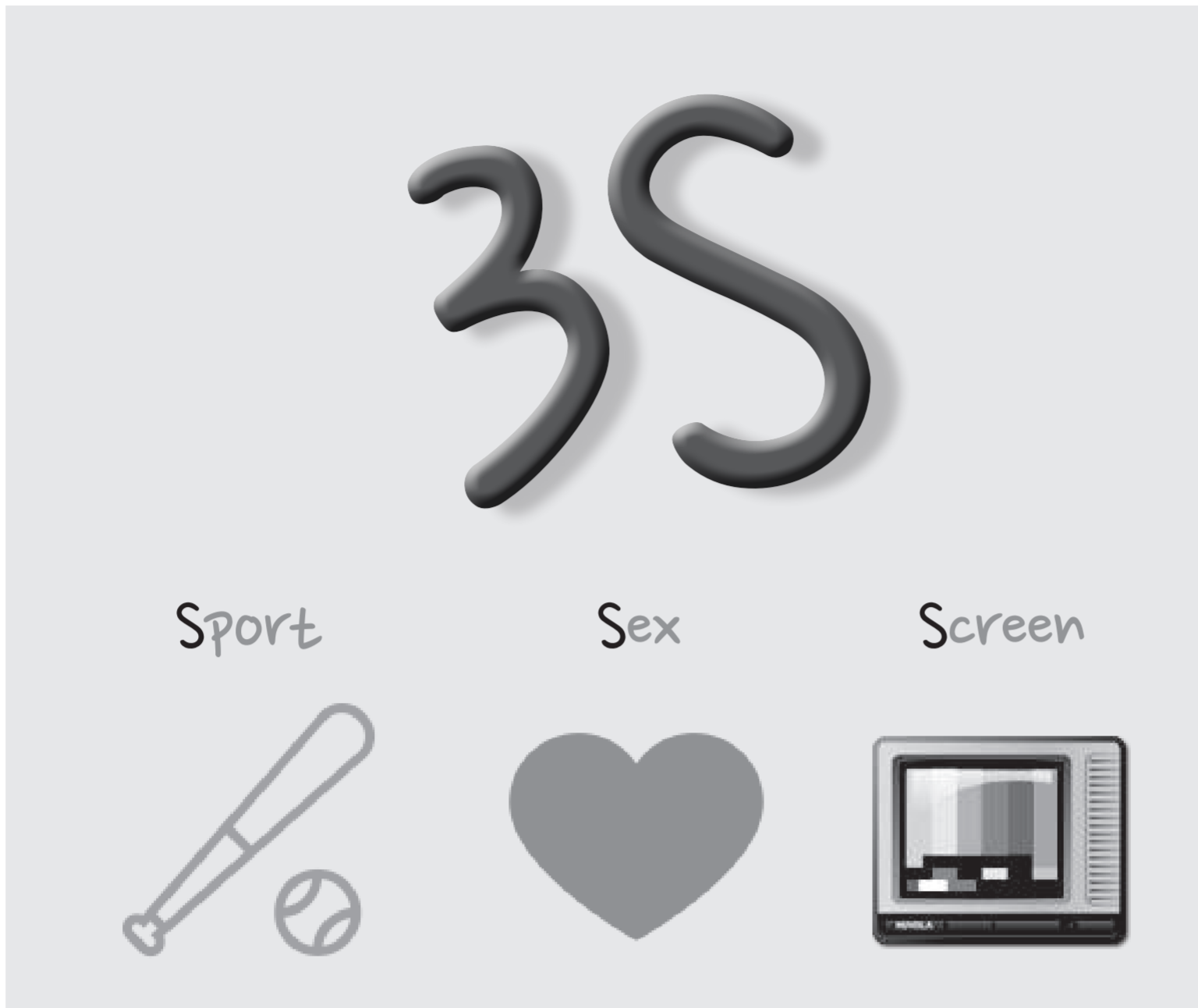
임태미(시각영상 2)



정치적 무관심 유도하는 '3S정책'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기관지 한국청소년연구 26권1호에 실린 보고서 '뉴스 미디어 레퍼토리에 따른 후기 청소년의 정치적 시민성 차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뉴스를 아예 안 보거나 가십거리로 소비한다고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정치 및 정책에 무관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는 별개로 고의적으로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하는 정책이 있다. 정치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사용된 3S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3S정책'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자세히는 몰라도 아마 누구나 한 번쯤 어렵듯이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일 것이다. 3S정책은 섹스(SEX), 스포츠(SPORTS), 스크린(SCREEN)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독재정권이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쓰는 우민화 정책의 한 예이다. 우민화(愚民化)정책 또는 우민정책은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의 정치적 관심이나 비판력을 둔화시킴으로써 충성심을 조성하는 정책을 말한다. 영리주의에 의한 퇴폐 문화의 지배, 도박 사업의 흥행, 민주 정치의 형식화, 왜곡화에 따른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 등을 포함시킨다. 독재정권이 들어섰을 때 국민의 정권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감성적 민족주의를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3S정책의 모티브 '3F정책'과 또 다른 우민화정책 '문맹정책'

3S정책과 함께 우민화정책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3F정책과 문맹(文盲)정책이다. 3F정책은 3S와 마찬가지로 Futebol(축구), Fatima(파티마 성모발현, 가톨릭 교회가 공식 인정한 성모 발현지로 포르투갈에 위치), Fado(파두, 포르투갈 사람들이 가장 사랑했던 음악, 우리나라의 트로트와 유사의 첫 글자를 따서 불리는 정책을 일컫는다. 이 때문에 3S정책이 3F정책에서 차용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3F정책은 포르투갈의 독재자였던 안토니우 드 올리베이라 살라자르가 펼친 정책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기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포르투갈 국민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관심을 정치 아닌 딴 곳에 돌렸다. 3F정책을 실시했던 살라자르는 국

민의 40%에 달하는 문맹률을 방치해 36년간 독재자 체제를 이어나갔다. 문맹정책은 피지배층의 지적 개화를 방해함으로써 지배자에 대한 비판력을 빼앗아 수동적 존재로 만들어, 지배체제의 안정화를 꾀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 같은 문맹정책은 식민정책, 점령정책, 파시즘, 봉건적 지배 등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로마제국시절부터 사용되었던 우민화정책

우민화정책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 로마제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 로마제국의 지배층들은 대중들의 관심이 정치에 쏠리지 않도록 시인들이 오락시설을 즐기게 했다. 이들은 시민들이 무료 또는 저가로 오락시설을 즐기도록 제공했다. 콜로세움 안에서 검투사 경기가 열릴 때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과거 로마제국에서는 콜로세움에서 열리는 검투사 경기가 인기를 끌었다. 독일의 히틀러 역시 우민화정책을 실시했다. 나치의 선전상인 괴벨스가 우민화정책에 앞장섰다. 괴벨스는 대중들을 지배하고 정치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1935년 세계최초로 정기적인 TV 방송을 시작했다. 또한 베를린올림픽을 세계 최초로 32개국에 TV 전파를 통해 중계했다. 괴벨스는 전 국민에게 라디오를 제공했고, 라디오를 통해 히틀러의 일거수일투족을 독일 국민들에게 알렸다. 이를 통해 괴벨스는 국민들에게 '나치가 하는 일이 맞다'고 세뇌시켰다. 괴벨스는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다음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과거 일본 역시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를 손쉽게 통치하기 위해 식민지정책으로 우민화정책을 사용했다. 이 일환으로 일본은 우민화교육정책을 실행했다.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 국민을 황국 신민화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우민화교육정책을 실시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우리말 대신 일본어를 배우게 하고, 학교의 교과서는 일본의 침략 정책에 맞도록 편찬했다. 이는 일종의 세뇌 교육으로 한국인이라는 의식을 약화시켜 반항 없이 식민 통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는 '3S정책'

3S정책은 정식 명칭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굳어진 표현이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 최고 사령부가 패전국인 일본을 손쉽게 통치하기 위해 펼친 것이 3S정책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3S정책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은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였다. 이 단어는 1983년 경향신문의 게재된 칼럼에서 '흔히 스크린, 스포츠, 섹스의 두(頭)문자를 따서 현대를 3S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말한다'라고 처음으로 인용됐다. 이후 1985년 야스오카라는 학자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본에서 3S정책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 그러나 현재 3S정책은 독재정권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슈를 달 때 종종 사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3S정책을 잘 활용하는 나라로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을 꼽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됐던 '3S정책'

3S정책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됐다. 이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었던 시기는 전두환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80년대다. 전두환 대통령은 당시 12.12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무력 탄압으로 인해 흉흉해진 민심을 정치적 관심으로부터 돌려야만 했다. 당시 전두환 정부가 이를 타파하기 위해 내세운 정책이 3S정책이었다. 전두환 정부는 스포츠에 관해 많은 투자를 했다. 전두환 정부는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유치했다. 또한 현재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이 이 시기에 출범했다. 특히 프

로야구는 당시에도 열광적인 인기를 얻어 3S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시기에는 37년 만에 야간 통행금지가 폐지되었고, 때문에 성매매 업소 러브호텔, 안마방 등이 증가했다. 또한 포르노 테이프의 대중적 보급이 활발해졌으며 성인영화가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다. 뿐만 아니라 컬러텔레비전 방송이 전국적으로 시작됐다.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대학로 축제 등의 가요제 및 축제 역시 국민들의 눈을 정치에서 돌리게 만들었다. 전두환 정부는 이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여의도광장에서 '국풍 81'를 개최했다. '국풍 81'은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던 박정희 정권의 통치 전략을 모방한 전두환 정부의 정치적 이벤트였다. 이는 전두환 정부의 괴벨스 같은 역할을 한 허문도가 기획했다고 추정된다. 허문도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1주기를 앞두고 군사정권에 대한 학원가의 저항을 약화시키기 하자는 의도에서 대학생들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규모 축제인 '국풍 81'을 준비했다. 그러나 '국풍 81'은 국민들에게 외면받아 1981년에 열린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제는 '3S정책'이 아닌 '4S정책'?

기존에 스피드를 더해 4S정책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3S정책은 최근 SNS 또는 스마트폰을 합쳐 4S정책이라고도 불린다. SNS를 통해 정보의 확산이 빨라졌지만 이는 SNS의 큰 장점이자 단점이다. 허위사실도 빠르게 유포될 수 있어 그 부작용이 크다. SNS상 유포된 사실에 사람들은 사건의 단면만 보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어 SNS를 정치에도 은밀히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폰으로 이용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메인에는 정치 대신 연예와 스포츠 기사들이 도배되어 있다.

정치적 관심에서 눈을 돌리게 만들 목적이었던 3S정책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큰 문화발전을 가져왔다. 스포츠 강대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고, 한류를 양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젊은 이들의 정치적인 관심은 떨어트리고 말았다. 누구나 적극적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정치적 이슈로부터 눈을 가리는 3S의 달콤함에 현혹되지 말고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현정 기자 hj6757@hansung.ac.kr

서원재교수의 락킴 스포츠의 흥행은 문명의 순응에 달려있다.

올해 프로야구에 처음 도입된 와일드카드 제도. 포스트시즌 진출에는 실패했으나 이 중 가장 성적이 좋은 팀에 포스트 시즌 참가를 인정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한 장의 카드를 거머쥐기 위한 중화위권 팀들의 경쟁은 그 어느 해보다 치열했다. 준플레이오프전이 열리는 지금, 팬들은 벌써부터 어느 팀이 한국시리즈를 제패할지 눈과 귀를 모은 채 가을야구에 빠져들고 있다.

경제학자 겐트레이스는 현대사회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규정한다. 불규칙적인 변화로 미래에 전개될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 양자역학의 원리처럼 사회는 본질적으로 그 구성요소와 구성원의 환경적 위치, 변화량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다. 이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만은 아니다. 과거·현재·미래의 환경과 인간 간의 속성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불안정해져서다. 즉 대중과 사회 그리고 환경 사이에는 다양한 변수와 위협요인이 존재하며, 사회는 구조적으로 불안과 불확실성의 틀

안에 놓이게 된다. 가변의 사회적 총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문명의 시도는 허망할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은 안정과 미래를 확정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진리를 거역한 다. 과학의 힘을 빌려 미래를 예측하고 기획하려고 한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든다. 문명의 이러한 집은 자유적, 사유적 존재인 대중에게는 곤욕이다. 더군다나 전략적 사고와 예지를 계급과 자본의 보상 기준으로 내세우니, 억울하기까지 하다. 이러한 문명의 작동 원리는 대중에게 희망을 갖간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는 대중에게 오히려 희망이 되기도 한다.

문명사회와 달리, 스포츠는 불확실성의 원리에 순응한다. 스포츠는 작기도 작본도 없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 경쟁의 현장에서 생산과 동시에 사라지는 허구적 산물이기도 하다. 실패와 역경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기까지 한다. 스포츠의 이러한 특성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픽션적 묘미까지 더해준다. 그래서일까, 스포츠는 기획

된 문명사회를 벗어난 일탈과 희망의 장이 된다.

양자역학의 불확실성 원리처럼, 스포츠 세계에서는 통계적 분석과 확률을 무색케 하는 심리적, 정신적 요인이 작용한다. 강자와 약자가 늘 존재하지만 결과는 투쟁을 열어야 할 수 있다. 놀랄만한 사례 몇 가지. 우선 대한민국의 2002월드컵 4강 신화를 들 수 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2014년 FIFA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개최국 브라질이 독일이 1대 7로 무참히 패하고, 세계랭킹 200위 밖의 에드문슨이 호주오픈테니스에서 우승했다. 또한 양용은이 골프황제 타이거우즈를 꺾고 PGA대회에서 역전 우승했다. 하나같이 문명사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스포츠에서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불확실성은 문명의 골칫거리이다. 하지만 스포츠에서는 핵심가치인 셈이다. 미디어 연구는 경기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울수록 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에 모이고, TV중계를 시

청한다고 이야기한다.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이변이 일어난 날, 그 날의 하이라이트 방송과 신문 기사의 시정률과 구독률이 오르는 사실은 불확실성에 대한 대중의 욕구를 보여준다.

오늘날 스포츠 마케팅은 문명과 대중의 긴장, 그리고 불확실성의 필요를 잘 알고 있다. 전체 의류판매의 28%를 차지하는 델러스 카우보이의 라이선싱 수익을 28개 팀에 공동 분배하는 NFL, 팀 간의 경기력을 평준화하여 결과의 불확실성을 높여서는 심산이다. 문명의 불합리를 기대와 희망으로 보상받으려는 대중의 욕구를 간파했다고나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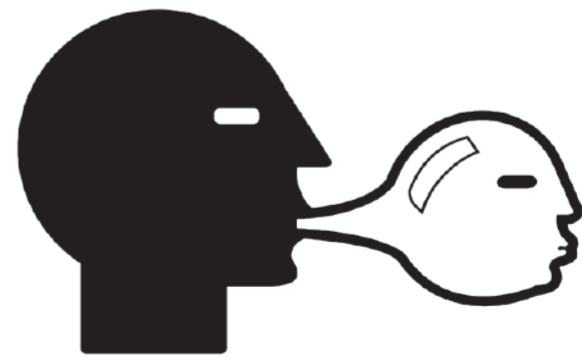
문명이 불확실성을 없애려 예술 수록 대중은 스포츠의 불확실성에 묘미를 느끼고 몰입한다. 문득 궁금하다. 문명이 만약 불확실성의 원리에 순응한다면, 스포츠의 흥행은 어떻게 될까?

서원재

을지대 스포츠아웃도어학과 교수



꿈을 씹으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미국의 세인트 로렌스 대학(Lawrence University) 심리학자 서지 오나이어(Serge Onyper) 교수가 진행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험 직전 5분간 꿈을 씹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시험 점수가 높다. 이 연구는 꿈을 씹는 행위를 통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시험과의 연관성을 실험하였다. 실험은 시험 시간을 기준으로 꿈을 씹는 시간을 다르게 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시험 시작 5분 전에 꿈을 씹는 학생들이 보다 좋은 시험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렵게도 꿈 씹기의 효과는 시험 시간 내내 나

타나지 않았다. 시험이 시작되고 약 20분간,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한하여 지속되었다. 한편 시험 중간에 씹는 꿈은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연구팀의 서지 오나이어 박사는 이러한 결과를 '꿈을 씹는 행위는 뇌를 각성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시험 직전에 꿈을 씹는 것은 뇌를 깨우는 데 도움을 주고, 이는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험 중간에 꿈을 씹는 것은 역으로 시험을 볼 때 인지, 사고 작용에 사용되어야 할 뇌의 기능의 일부가 꿈

을 씹을 때 사용되기 때문에 시험 성적에 좋지 않을 것인 말이다.

이에 더해 단국대학교 치대병원 김경욱 교수의 학회발표 논문자료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꿈을 씹는 것은 뇌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호주 스웨덴대학교 앤드류 스펀리 교수의 논문에서는 꿈 씹기는 스트레스 수치를 줄인다. 연구 실험은 실험 대상에게 꿈을 씹도록 한 후 남이도 높은 문제를 풀게 하고 측정해보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학생이 시험을 준비하여 공부한 것보다 어려운 시험을 마주했어도 큰 스트레스를 갖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교내 중간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교내 시험 이외에도 작게는 자격증이나 영어능력을 위한 시험부터 취업시험까지, 우리 학교 학생들은 365일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험은 준비한 대로, 역량대로, 보는 것이라지만 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그날 컨디션 관리는 필수다. 본인 혹은 아까는 사람의 시험 컨디션을 위해 시험 전날 편의점에 들려 겸 하나, 주머니에 든듯하게 넣어드는 것도 좋을 듯하다.

오그림 기자 1233075@hansung.ac.kr

PPT 제작 꿀팁 통해 진정한 고수가 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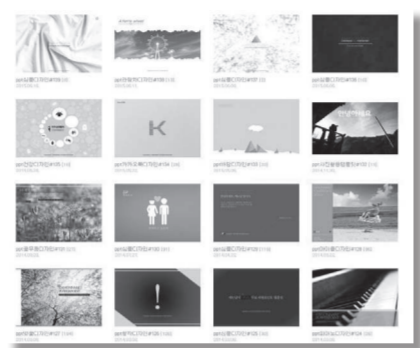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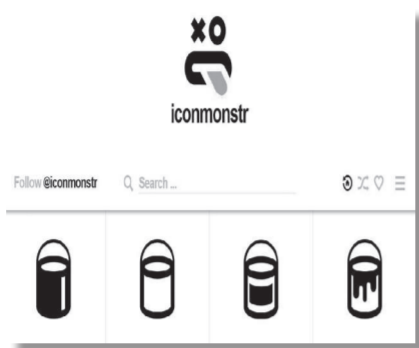
지난 1학기 발표 수업, 조별과제에서 빠질 수 없었던 PPT, 혹시 수강신청 때 PPT 발표가 없는 수업만 골라 신청한 것은 아닌지? 한성대 신문은 지난 9월 4일부터 9일까지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PPT를 제작할 때의 어려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위는 디자인, 2위 인포그래픽, 3위 배치, 4위 이미지 찾기, 5위 컬러배합, 6위 폰트 순으로 PPT 제작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두려워 말자. 이번 학기 친구들과 교수님의 시선을 사로잡을 PPT 제작 꿀팁을 소개한다!

신동석 기자 오그림 기자
한재원 기자 현정은 기자

「 디자인 」

★★★★★

글만 빼곡한 재미없는 PPT는 이제 그만! 청중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발표 내용도 중요하지만 PPT의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다! 더욱 완벽한 PPT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디자인도 놓쳐서는 안 된다. 디자인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래 사이트부터 접속해보자.



1. 픽토그램을 통해 긴 내용을 간단히 표현하자
Thenounproject.com
다양한 픽토그램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사이트다. 유료이름도 가능하지만 무료가 용도 가능하니 차근차근히 다운받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나의 아이콘을 다운받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개의 아이콘을 이용하여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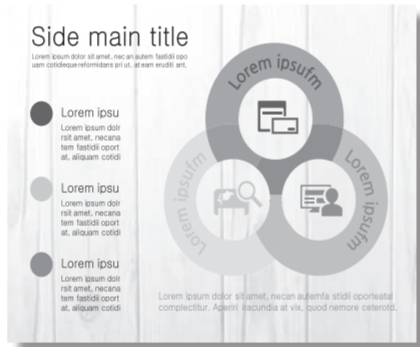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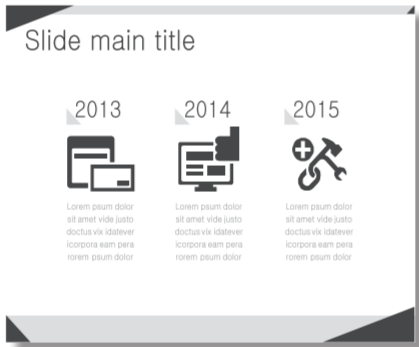
2. 때로는 이미지보다 아이콘이 더 효과적이다
http://iconmonstr.com/
THENOUNPROJECT 사이트와 비슷하게 여러 픽토그램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파워포인트에 글씨입력만 할 수 있던 시절, 고학년 선배들이 준비한 간결한 PPT에 얼마나 감명받았던가. 딱히 많이 손댄 곳도 없는 듯 한데 그들의 발표가 귀에 쏙, 눈에 쏙 들어오는 듯하니 말이다. 저런 귀여운 아이콘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든 것일까. 일단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자.

3. 무료 템플릿을 활용해 제작 시간을 단축하자
http://baesyaesy.blog.me/
10월 10일 오후 기준으로 약 무료 템플릿만 139개가 업로드 되어있다. 몇 템플릿의 경우 귀여운 애니메이션 효과도 함께 있어, 발표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다. 단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는 페이지는 발표 전 제출하는 PPT자료를 뽑을 때 주의하여야 한다.

「 배치 」

★★★★☆

PPT를 만들기 위해 템플릿을 선택한 당신. 그 다음 순서는 레이아웃 구성이 될 것이다. 레이아웃 구성을 하기 위해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글과 사진의 배치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배치하기. 배치를 어렵게 생각하는 당신. 배치하기 꿀팁을 알아보자.



1. 청중의 시선은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방향을 정할 때에는 청중의 시선에 따라!
PPT를 만들 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청중들이다. 자신의 입장이 아닌 청중들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한 슬라이드 안 내용의 흐름은 청중들의 시선의 흐름과 동일해야 한다. 방향을 정할 때는 우향, 하향, 우하향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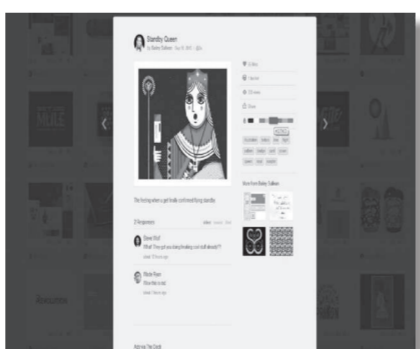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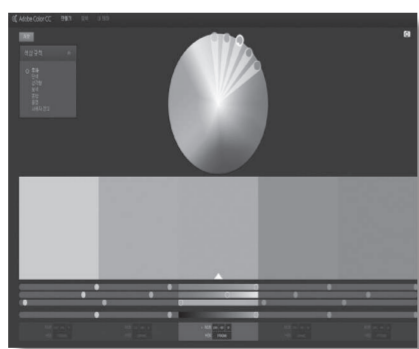
2. 내용이 많고 좋은 것이 아니다. 사진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글보다는 사진!
PPT를 만들 때는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여백이 생기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한 슬라이드 안에 빼곡히 써 놓는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청중들에게 외면받기 십상이다. 내용을 최대한 간단히 사진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사진만 넣는 것이 좋다.

3. 임팩트를 주고 싶다면 사진의 배경을 제거. 사진은 사각형이라는 틀을 깨라!
사람들의 인식은 사진이 사각형이라는 생각이 크다. 그러나 슬라이드에 임팩트를 주고 싶다면 사진의 배경을 제거해 대상을 부각시켜라. 단박에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단, 배경제거 효과는 파워포인트 2010과 2013에만 있다.

「 컬러배합 」

☆☆☆☆☆

PPT를 만드는데 있어서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것은 바로 컬러이다. 어떻게 표현해야 더욱 시각적 효과가 극대화 될지 고민될 때! 세 가지만 명심하자.



1. 메인컬러를 정하라
PPT 주제에 따라 연상되는 사물 혹은 기호에 적절한 색을 떠올려 디자인(폼)을 정한다.

① 어도비 컬러 사이트
https://color.adobe.com/ko/
유사색, 보색 등 다양한 색상규칙을 통해 컬러를 골라내기 편하다. '작업 만들기'가 어렵다' 생각된다면 왼쪽 상단 '탐색'에서 다양한 색상표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오른쪽 상단 사진기를 클릭하면, 보유하고 있는 사진의 컬러도 뽑아낼 수 있다. 컬러는 하단에 있는 'RGB', 'HEX'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

표를 캡처해 스포이드(포토샵)를 사용해 추출하여 사용하면 원하는 색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색상표에 원하는 색상을 클릭하면 그와 같은 색이 들어간 이미지들이 나타난다. 개인 활용도에 따라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2. 서브컬러를 정하라
서브컬러는 메인컬러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같은 계열의 색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눈에 띄지 않게 메인컬러보다 연한색이 좋다.

② 드리블릿 컴
https://dribbble.com/
이곳은 다양한 이미지가 많다. 마음에 드는 이미지 컬러를 찾았다면 그림을 클릭한 뒤 오른쪽에 색상배열표가 보인다. 이 배열

③ 구글링
https://google.com/
방대한 자료가 모여 있는 이곳 구글검색 엔진. 그냥 검색해서 찾아보면 끝도 없다. 검색창에 'color combination'을 치면 다양한 색상표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도 스포이드(포토샵)를 이용해 색을 추출하면 된다.

「 인포그래픽 」

★★★★☆

이제 PPT의 완성은 인포그래픽이 되었다. 인포그래픽을 제작할 수 있으나, 없느냐가 바로 PPT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것! 그렇기에 많은 학생들이 인포그래픽을 피피티를 만드는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으로 꼽았다. 먼저 디자인 전공이 아니라면 디자인에 대한 욕심은 과감히 버려라. 일러스트, 포토샵 툴을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 있다. 인포그래픽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적극 활용해 PPT의 '격'을 올려보자.



1. 기존의 인포그래픽을 참고하자
모방은 창조之母라는 말이 있듯이 인포그래픽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잘 만들어진 '인포그래픽'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어야 한다.
http://visualdive.co.kr/
인포그래픽 뉴스를 제작하는 비주얼다이브는 다양한 사회 이슈를 인포그래픽을 통해 보여준다. 비주얼다이브에서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아이디어를 얻자!
http://info-graphic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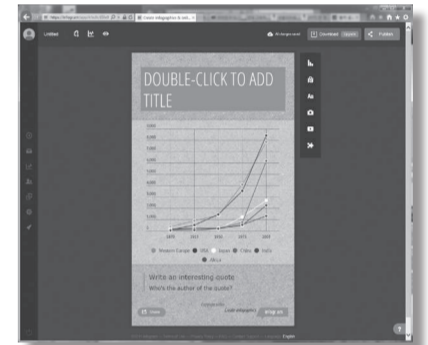
다양한 인포그래픽 사례 및 정보를 공유하는 인포그래픽스.kr에서는 주제별로 인포그래픽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인포그래픽 제작하는 툴에 대한 리뷰가 있어 인포그래픽 툴을 다루는데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인포그래픽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제작하자

일러스트나 포토샵 없이도 충분히 인포그래픽을 제작할 수 있다. 파워포인트의 가내수공업 없이도 제작하는 방법, 인포그래픽 제작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간단한 수치를 입력하거나 디자인 요소를 배치해 인포그래픽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

https://magic.piktochart.com/

픽토허트는 인포그래픽 디자인이 완성되어있다. 이 디자인 위에 원하는 내용을 덧입히기만 하면 인포그래픽 완성! 하지만 한글 폰트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완벽한 인포그래픽 디자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고서도 제작해 볼만 하다.



https://infogr.am/

간단한 수치를 입력하면 인포그래픽 차트를 제작해주는 사이트다. 프레젠테이션의 기본 차트가 질린다면 이 사이트를 활용해 보다 시각적인 차트를 제작해보자.

「 이미지 찾기 」

☆☆☆☆☆

더 이상 깨진 이미지는 그만. 고품질의 멋진 이미지를 잘 찾는 것도 PPT를 만드는데 있어서 필수 요소이다. 한 장의 이미지가 여러 줄의 문장보다 더욱 효과적인 때가 많은 만큼 적절한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아래 사이트들을 이용해보자.



http://pixabay.com/
픽사베이에서는 고품질의 사진을 다양한 사이즈로 다운 받을 수 있다. 가끔 원하는 이미지가 나오지 않는 함정이 있지만 한글이 아닌 영어로 검색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http://picjumbo.com/
픽사베이보다 좀 더 감성적인 사진을 원한다면 픽젠티를 추천한다. 열심히 검색하다보면 정말 무료이미지가 만나 싶을 정도의 고품격 이미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폰트 」

☆☆☆☆☆

PPT고수/한컴 오피트 250/
PPT고수/나눔바른고딕/
PPT고수/나눔고딕/

PPT고수/조선일보명조/
PPT고수/한겨레결체/

PPT는 정보전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화려한 글씨체보단 단정찬 눈이 편한 글씨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에 기본적인 폰트를 추천한다.

폰트는 위의 다른 요소들보다 구하기가 편리하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원하는 폰트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나눔 글꼴 http://hangeul.naver.com/ 영문 폰트 http://www.1001freefonts.com/

▲무난하고 거부감이 없는 고딕체 ▲가독성이 좋은 신문체

PPT 강좌 블로그

http://seiru523.blog.me/

최근 네이버 포스트에서 PPT 강좌를 연재해 5만 구독자를 거느린 새별의 파워포인트의 에디터 새별. 그녀의 블로그에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PPT 제작 강의와 언제든 활용가능한 팁을 공유하고 있다.

http://leehyekang.com/

PPT 블로그 강좌의 원조 친절한강씨. 구독자가 7만 4천 여명에 육박하는 그녀의 블로그에는 템플릿 이외에 내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사진과 아이콘, 차트 등에 대한 자료도 함께 얻을 수 있다.



가을이 가기 전에 그래니룩



▲사진 출처 : <http://goldschnee.com/>, <http://www.lucedale.co/>

투박한 니트 스웨터에 자수 프린팅, 트위드 재킷과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기장의 플리즈스커트, 빈티지한 안경과 클래식한 모자, 이번 가을 역시 복고의 열풍이다. 이번 시즌의 복고는 마치 할머니 옷장에서 막 꺼내 입은 듯한 '그래니룩(Granny Look)'이 대세다. 요즘 찾기 힘든 자수가 짜여진 니트 카디건, 고상한 패턴의 원피스 등 그래니룩은 율가을에 빈티지함과 보헤미안 무드를 보여주기 제격이다. 그런데 그래니룩, 잘못 입으면 진짜 할머니 스타일 되지는 않을까.

그래니룩은 70년대 소녀들이 할머니 시대인 1920~30년대의 패션에 즐긴 데에서 유래했다. 손뜨개 니트와 트위드, 벨벳 등 투박한 소재에 체크나 꽃 같은 빈티지한 프린트를 더한 의상을 말한다. 이처럼 복고풍과 빈티지한 의상들을 조합한 그래니룩이 유행하고 있다. 2015년 구찌 F/W 컬렉션에서도 레트로한 감성이 물씬 풍기는 빈티지한 의상들이 그래니룩의 정석으로 꼽혔다.

어떻게 입어야 그래니룩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자칫 촌스러운 스타일이 되기 쉬운 그래니룩이지만, 몇 가지 아이템만 매치하면 쉽게 연출할 수 있다. 프린팅 블라우스와 줄무늬 스웨터, 체크무늬 트위드 스커트 거기에 니트 양말과 메리제인 슈즈는 소녀스러운 분위기도 함께 연출할 수 있다. 무릎 아래 기장의 플리즈스커트와 니트의 조합, 거기에 스퀘레토 힐을 신어주면 그래니룩이지만 오히려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다양한 소재와 프린팅을 적절하게 매치해볼 수 있다. 상, 하의를 비슷한 톤으로 입어준 뒤 장식 이 큰 브로치나 진주 목걸이를 매치하면 복고풍의 키치 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벨테 안경이나 금테 안경, 베레모 등의 아이템으로 스타일링을 하는 것도 좋다.

겨울 냄새가 코밑으로 다가오는 요즘, 따뜻한 도시의 여자가 되어 보자. 이 가을이 끝나기 전 70년대를 연상케 하는 빈티지 의상들을 매치해 그래니룩을 즐겨 보는 것이 어떨까?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셀러비의 시크 로퍼 힐
▲셀러비의 스위트 글라스/안경
▲프레클 서울의 colour wool beret



▲그래니룩을 선보인 구찌 2015 F/W 컬렉션.

빈티지를 찾을 보물같은 장소 t.o.p 3



▲쌔지길 핸드메이드 빈티지 샵 One of a kind.

개인 빈티지샵 - One of a kind
레트로한 감성의 빈티지를 좋아한다면 인사동 쌔지길에 위치한 빈티지샵 원 오브 어 카인드(One of a kind)에 가보는 것이 어떨까. 원 오브 어 카인드에서는 빈티지 패브릭을 직접 리폼해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핸드메이드 아이템들로 가득하다.
특히 이 빈티지샵을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오래된 듯 멋스러운 빈티지 백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질 좋은 가죽과 유니크한 디자인을 가진 가방들과 다양한 패턴의 빈티지한 블라우스들, 충분히 나를 돋보이게 할 액세서리까지 더해져 마치 이곳은 빈티지를 찾아 해낸 당신만을 위해 준비했다고 말하는 것 같다.

벼룩시장 - 동묘앞 구제 시장

빈티지, 구제 아이템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면 동묘 앞 구제 시장이 가격 면에서 제격이다. 옷 무더기 사이에서 보물찾기 식으로 마음에 드는 옷을 찾아내면 단돈 천 원에도 구제 옷을 살 수 있다. 만지를 뒤집어쓰면서 옷 무더기를 헤집다 보면 생각보다 멋진 옷이 발견되기도 하고, 유니크한 의상을 찾을 수 있다. 옷을 찾는 과정이 쉽지는 않으나 두 손을 가



▲동묘앞 구제시장.



▲신진 디자이너 편집샵 에이랜드 명동점.

볍게 하고, 현금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옷을 고를 때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 역시 필수다.

신진 디자이너 편집샵 - 명동 에이랜드

신진 패션 디자이너들의 제품을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는 편집샵 에이랜드(A-land)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명동 본점에는 4층과 5층이 구제, 빈티지의

류로 채워져 있다. 구제지만 '신상'만큼이나 만족감을 줄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하면 매월 정기 할인 쿠폰도 제공하니 이를 사용하면 더 저렴하게 옷을 구입할 수 있다. 코디에 자신이 없다면 패션 감각을 키워줄 편집샵에서 빈티지를 접해보는 것은 어떨까.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웹툰 **죽어도 좋아** 미끌거다

<죽어도 좋아♡>
골든키위새

글/그림 골든키위새

나쁜 놈보다 무서운 건 자기가 옳다고 믿는 나쁜 놈이다. 과장은 그런 인간이었다. 과장에게 있어서 회사 직원들은 성형중독, 지갑대 출신, 기생여자. 자기가 훈수를 뒤서 마땅히 고쳐놔야 하는 '틀러 먹은' 인간들. 자신의 지 작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며 사람들이 자길 싫어하는 건 그런 솔직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죽어도 좋아♡>_10화

죽어도 만나기 싫은 부류가 있다. 자신의 생각이 곧 상식이라고 믿는 사람. 남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한마디 씩 거들어 줄때가 종종 있다. 충고 비슷한 훈수, 특히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스트레스를 주고는 하는데 이제까지 여자가기 때문에 받아 온 훈수가 적지 않았다. 여자는 외모가 예뻐야 하지만 성형을 하면 성형괴물이고... 여자가 밥을 못 하면 시어머니와 남편 될 남자가 불쌍하고... 여자는 서른이 넘으면 퇴물이고... 등등! 이런 꼴대 같은 말을 누가 하냐고?

웹툰 <죽어도 좋아♡>의 주인공 이루다 주임의 미중년 상사 백 과장! 바로 그가 회사 직원들에게만 유독 훈수를 두면서 스트레스를 주는 인물로, 생긴 것만 그럴싸한 약덕 상사이다. 웹툰 <죽어도 좋아♡>는 그림체와 제목만 보면 잘생긴 미중년과의 로맨스를 상상하기 쉽다. 그런데 주인공 이루다에게

백 과장이란 '죽이고 싶은 상사'다. 그런데 말이 씨가 된다고 백 과장이 사교로 죽고 다음 날이 되어도 여전히 14일! 이루다의 반복되는 하루가 시작되는데! 백과장이 죽을 때마다 하루가 리셋되는 그녀는 마땅히 죽어도 썩 인물 백 과장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된다. <죽어도 좋아♡>의 백 과장 그가 직원에게 퍼붓는 극단적인 인격모독 발언은 합당한 어른의 말씀이요, 진리이니. 본인의 더딘 승진은 능력이 부족한 탓이 아닌 파벌을 따르지 않아 받는 일방적인 피해이다. 수를 거듭할수록 사소한 이유로도 죽는 과장 때문에 이루다의 내일이 찾아오질 않고, 결국 이루다는 과장의 성격을 뜯어고쳐 착하게 살도록 해야 하는 사태에 이른다. 자신의 삶을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백 과장의 문제를 직면해야 하는 이루다의 눈물겨운 행보를 지켜 보자. 골든키위 작가의 드립력과 재미도 보장한다.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독자이벤트

독자이벤트는 한성대 신문을 구독하는 학우분들에게 연극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신문을 읽고 주관식 단답형 문제를 풀어주세요!

Q1. 사회 기사에서 다룬 대학 여성주의 단체 4곳의 이름을 쓰시오.
Q2. 학술 35 정책의 약자가 무엇인지 쓰시오.

· 지만호 당첨자 ·

- 506호 연극티켓 당첨자
- 김영광
- 임장백
- 조태현
- 이현주
- 희원
- 김마리
- 성혜민

지난 506호 페이스북 이벤트 당첨자는 연극표를 이미 수령하였습니다.

· 추천방법 ·
정답자에 한해 추천하여 연극<죽여주는 이야기> 티켓을 (1인 2매)을 드립니다. 이름/학과/학년/연락처를 기재해 신문사로 방문하여 주세요.

대학로 명품코믹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

웃다 죽고 싶습니까? 주년 명품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학로 창작연극 예매율 1위

2008년 10월 1일 ~ 죽을때 까지

월-금 2시, 4시 30분, 8시 / 토요일 오전 11시30분, 2시, 4시, 6시, 8시 / 일요일 오전 11시30분, 2시, 4시, 6시 (공연시간은 유동적이나 전화문의바랍니다)

제작/주최 **극판** || 장소 || 대학로 삼형제극장 || 문의 || 02-6326-1333